

7/9/23

설교 제목: 그날이 오면 2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13 장 1-9 절

(스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 13: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 13:3)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스 13: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절관주** 마 3:4

(스 13: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스 13: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스 13: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스 13: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스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니라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전 장에 이어 계속해서 그 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스가랴는 그 날을 전 장에서 7 번, 본 장에서 3 번, 그리고 다음 장에서 4 회나 언급할 만큼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종말적인 구원의 날을 강조합니다.

스가라는 그 날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날에 성령이 부어져 이스라엘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슥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믿게 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날이 오면 이 땅에서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13: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날이 오면 거짓 환상을 이야기하며 선지자들이 입는 털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13:3)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슥 13: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슥 13: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슥 13: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혹시라도 누군가가 선지자인지 여부를 물어보면 존경을 기대하며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정체는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끄러워하며 평상시 입던 털옷도 입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복음을 반대하며 거짓 예언을 늘어 놓는 자는 그 부모라도 참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칼로 그를 찌르리라'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날이 오면 그만큼 진리에 굳게 서며 거짓 예언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그 근친이라도 거침없이 죽였습니다.

(신 13:6)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꺾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 13:7)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신 13:8)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신 13:9)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신 13:10) 그는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꺾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또한 황홀경에 빠져 자기 몸에 내었던 상처로 인해 생긴 흉터를 숨기려고 온갖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며 예언을 했습니다.

(왕상 18:25)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왕상 18:26)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왕상 18:27)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왕상 18:28)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왕상 18:29)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복음의 명백한 진리를 부인하거나 대적하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에 온몸을 씻었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헛된 환상이나 거짓 예언에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선지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서 고난을 당하시다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수 13: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흘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내 목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라는 말입니다.

‘내 짝된 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자를 의미합니다.

‘내 짝된 자를 치면 양이 흘어지려니와’는 칼이 내 짝된 자를 칠 것과 그러면 그가 치던 양들이
 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입니다.

(마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흘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한 바로 그 목자임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 위에 당신 손을 드리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자들’이란 세상적으로 미천하고 힘없는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내 손을 드리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천하고 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전 1: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남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슥 13: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슥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 날이 오면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남는다고 하십니다.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오면 멸망하는 자와 남는 자가 갈립니다.

남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신 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리워주실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칼과 방패가 되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밟으사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 계시록 21 장 말씀입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 모두가 비웃어도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사십시요.

이기는 자 되십시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